

《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남조선 전 지역에서 전쟁반대, 미군철수,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투쟁 강화

남조선에서 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미국과 이에 편승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역도를 퇴진시키기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7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평화행동》은 14일 서울의 통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연습중단, 미군철수, 윤석열역도퇴진으로 핵전쟁을 막을것을 호소하였다.

《평화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또다시 강화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선계 공격》과 《체제전복》, 《평양점령》을 노린 《작전계획》에 따른 전쟁연습이다. 《을지 자유의 방패》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전쟁위기는 지역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로 확대될수 밖에 없다. 조선반도를 화약고로 만드는 전쟁연습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민중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연습을 막고 평화화를 지켜내자고 강조하였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의 통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정부》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 나선 발언자들은 미국이 《유엔군사정부》라는 명칭을 도용하여 쓰고있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정부》를 해체할대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미군은 지금도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에 주둔해있으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유엔군사정부 해체하라!》, 《윤석열은 유엔군사정부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매도에서 중단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로총》도 지난 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쟁반대, 미군철수,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여 끝까지 싸울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들(을지 자유의 방패)》, 《위험천만한 무력시위의 끝은 재앙일뿐》 등의 표제의 기사에서 《북선제타격》의 개념이 담긴 《작

전계획》에 따른 역대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예정되면서 각계층이 불안해하고있다고 밝히고 핵전쟁을 막는 길은 전쟁연습중단, 미군철수, 윤석열퇴진에 있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치욕의 연설》, 《위험천만한 전쟁선언나발》, 《진보개혁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

지난 8월 15일 윤석열역도가 《광복절경축사》라는것을 통해 반공화국대결약당과 친미, 친일말발을 철회하겠다고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광복절경축사》는 반공화국적대외의식과 복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위험천만한 대결연설》이라고 강하게 단죄하고있다.

그러면서 윤석열역도의 망발은 《담대한 구상이 아닌 담대한 대결을 강조하였다》, 《극히 위험한 대결연설이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남조선미국일본사이의 군사협력을 또다시 떠드는데 대해서도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위험한 발언》, 《조선반도의 평화를 더욱 위협하게 하는것》, 《전쟁말발을 기정사실화하는것》이라고 단죄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역도가 일본에 과거죄악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할 대신 안보와 경제의 협력대상이라고 추켜세웠다고 하면서 《윤석열의 문지마시 친일말발이 그대로 드러났다》, 《광복절이 굴복일이 되었다》, 《광복절경축사가 아니라 치욕의 연설》, 《최악의 광복절경축사》라고 비난하고있다.

또한 《윤석열의 집권후 통산청사에 일장기가 게양될가봐 걱정하였는데 더 충격적인 나발을 불어냈다》, 《치가 떨린다》, 《윤석열을 잘못 뽑은것때문에 민족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는 현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파국적인 후과를 몰아올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강화방향을 당장 저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윤석열역도의 《광복절경축사》에 대해 《검찰독재, 폭압정치를 반대하는 진보개혁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경축사가 아니라 리념대결선동문이다》, 《인권과 진보정치적의 역사를 말리려는 패륜적언사이다》, 《주민들을 적어로 갈라놓고 상대를 심멸해야 한다고 주장한 21세기의 심적한 반공선전이다》고 강하게 규탄하는 목소리도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속에서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다.

한편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역도의 《광복절경축사》에 대한 각계층 시민들의 비난과 규탄, 항거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다고 하면서 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이 앞으로 더욱 거세차게 벌어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우리는 국민을 배신한 〈정권〉을 심판한 경험과 힘이 있다》, 《참사 〈정권〉, 재난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남조선에서 반민적악정과 친일굴욕외교에 매달리고있는 윤석열역도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가 날로 배가되고있다.

12일 서울에서는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한 《윤석열정권퇴진 2차범국민대회》가 열리었다.

대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은 《윤석열은 로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건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끝내 양희동형사를 죽임에 이르렀다. 철저히 민생을 외면하고 로동자들을 탄압해온 윤석열 〈정권〉은 자적

이 없다》고 성토했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총연합회》의 장은 《곡물전쟁과 기후위기심화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하는 와중에 윤 〈정권〉은 수입농산물을 더 많이 들여오겠다고 한다. 이는 농민을 죽이는것을 넘어 우리 국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하였다.

《민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가스비, 전기세에 이어 교통비까지 인상되는 마당에 윤 〈정권〉은 세수위기에 떠들면서 재벌부자감세정책만 강화하고있다. 로점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사

는 도시민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고 토로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여성가족부〉를 폐기하겠다고 한데 이어 공동돌봄기관예산축소로 여성장시간로동을 강요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권〉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임신, 출산,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하였다.

《한국청년연대》 대표도 《윤석열은 청년목돈마련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청년일자리창출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입에 발린 〈청년을



남조선에서 여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다같이 떨어지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도탄속에 아우성치는 민생에는 아랑곳없이 싸움질에만 미쳐돌아가고있는 혐오스러운 정치인들에 대한 민생의 저주와 환멸의 분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의 여야당들은 민생경제악화와 폭우피해, 국제행사파탄 등 정책실패와 사회적혼란을 놓고 서로 물고뜯는 싸움질만을 일삼고있다.

세계청소년야영대회파탄문제를 놓고 여야당들이 벌리고있는 패거리싸움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원래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번 야영대회를 저돌의 인기를 울리는 주요계기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대회참가자들은 나무 한그루 없는 간척지에서 낮에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습기와 모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음모수사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품평자가 낚 음식이 공급되고 위생실과 샤워실도 더럽고 한심하여 생지옥같은 곳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밖에도 일본의 후쿠시마핵오염수해 양방류문제, 《더불어민주당》 혁신 위원회활동의 조기 종결문제를 놓고서도 여야사이의 물론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도 분점과 란투국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악화된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 추악한 정치적야망만을 추구하며 싸움질로 허송하는 이런 정치시정배들에게 민심이 침을 뱉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김 광 혁

파쇼독재의 망령이 부활한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가 검찰을 독재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역도는 검찰의 《독립성》을 떠들어대며 이전 《정권》시기 마련된 《검찰개혁안》들인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등의 효력을 차단하고 검찰의 수사권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주요요직들에 자기의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임명하고 검찰조직을 확대개편하고있으며 이전 《정권》이 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다.

검찰권력을 휘둘러 파쇼독재시대를 되살리고 정치적반대파들과 진보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

며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행위를 무마시키려는 단말마적발악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지금 남조선에서는 윤석열역도의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와 반공화국적대결책동, 파쇼와 반민적악정을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날로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한미일군사동맹 반대!》, 《전쟁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대일굴욕외교로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파탄 못살겠다, 윤석열 퇴진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의 남조선민심이다.

야당들과 지어 보수세력내에서도 윤석열역도의 강권과 전횡, 독선과 독주, 사회적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망언과 망동, 무지무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다.

이런 속에 역도의 너넨네가 주민들이 폭우피해로 아우성치고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에서 명품상점들을 들락거린 사실들이 폭로되고 서울-양양고속도로로선이 처가속속들이 소유한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된 《권력형부정부패의혹》이 터져나왔으며 역도의 장모년이 사기협박죄로 구속됨으로써 역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윤석열역도는 최악의 통치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급해맞은 윤석열역도는 검찰을 독재통치실현의 물격대로 내세워 자주와 민주, 평화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진보세력과 각계층 그리고 자에게 반기를 드는 정치적반대파들을 《한국가세력》,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유

스와 피당으로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려 하고있다.

이런 기도로부터 검찰권력을 확대하고 검찰의 주요요직들에 측근검사들을 들여앉히는 등 자기의 통치지반을 다지기 위해 퍼는 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검찰공화국완성기도》, 《파쇼독재망령의 부활》, 《시대착오적인 검찰공화국완성기도》, 《로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파쇼독재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

파쇼독재강화에서 살길을 찾는 윤석열역도의 운명도 달리될수 없다.

본사기자 김 혜 성